큰스님 수행한담

곡식 자랄 수 없어요”

◇ 1943년 당시 금산사 주지 성열스님(앞줄 중앙)과 함께 찍은 전북불교연합강원 졸업식 사진. 뒷줄 두번째 가운데가 춘명스님.

잡념 · 욕심갖고 불교 믿으면 소원이 이뤄지지 않고 마음속에 부정 가득차면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놓아 버려라” 은사스님 말씀 평생 교훈

“인연법 알면 생과사 얽매이지 않아요”

님께 절을 올리자 “어디서 왔는가?”하고 물으시더군요. “고향에서 왔습니다”하고 대답을 했지요. 만공스님께서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고는 “고향은 같은데 길은 다르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고향은 같은 한 고향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각 틀리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만공스님은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선객(禪客)이고 나는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 경학(經學)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다르지만 필경 그 목적은 성불을 이루자는 것이니 똑같습니다”하고 말하자 “아! 그러냐. 고맙다”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당시 3일간 마하연 선방에 머물렀는데 공양 때가 되자 하얀 쌀밥에 맛있는 송이국이 들어오는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라 쌀밥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끼니 때마다 배부르게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게 참 신기했지요.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접 받는 일이라는 걸 그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참선하는 것은 그 만큼 복을 짓는 일이지요. 강원에서 배고프게 지내다가 마하연 선방에서 쌀밥 먹으며 스님들 참선 수행하던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후 묘성스님은 평양으로 돌아가고 저는 남쪽으로 내려와 전라북도 연합강원에 머물렀습니다. 연합강원은 당시 전라도 지역 본산이었던 위봉사와 금산사가 합쳐서 만든 교육기관이지요. 다행히 그곳에서 공비생(供備生)으로 뽑혀 2년 동안 무사히 대교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은사스님이신 연성스님이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뒤 절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에 머물며 교토(京都)에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와 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불교대학을 다녔지요. 그런데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학도병이라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데 거기 끌려갔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와 금산사에 머물던 중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회향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교화사업을 펼쳤지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지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생의 생사(生死)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생과 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겠지요. 다른 종교에서나 철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에 대한 관심은 적고 사에 대한 관심은 많지요. 그것은 생에 대한 인연이나 사에 대한 윤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더 살아야겠다는 욕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불교인이라 해서 생에 대한 욕심이나 사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인연법을 알게 되고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를 체득하여 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생에 대한 애착과 사에 대한 공포심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인연에 따라 올 때에는 와야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을 때에는 늙어야 하며, 육체적 정력에 따라 자연히 오는 병고를 겪어야 하고 유형적 물질의 한계에 따라 죽음의 고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연법을 역행하는데서 두려움과 슬픔, 괴로움이 오게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안되는 것을 자탄하거나 누구에게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자기 잘못으로 얻게되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미래를 추구하면서 선업(善業)에 정진해야 해요.

우리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드러내서 흉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숨기며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도 엄청남을 살펴볼 때 마음이 아프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리 숨기려해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지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하겠습니다. 가령 세상사람의 이목은 피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피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중생을 속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범한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할 줄 알아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험한 집은 빨리 수리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병든 자는 어진 의원을 찾아 빨리 치료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더러운 의복은 자주 빨아 입어야 추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아침에 지은 잘못은 저녁에 참회하고 저녁에 지은 잘못은 아침에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잘못을 참회할 줄 모르고 은폐하면서 잘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이 가득찬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 보았자 넘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잡초가 우거지면 곡식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부정이 차 있으면 착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울한 근심속에서 찌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가 만족되면 둘을 생각하고, 둘을 얻으면 열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욕심만 부리다 보니 항상 불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는 우울한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예요. 불만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진심을 일으키면 자신의 마음과 몸에 무서운 병만 일어나 고통을 받게되지요. 부처님 말씀에 진심은 불과 같아서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몸을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진심을 한번만 참아보고 밝은 웃음으로 대해 보세요. 밝은 웃음은 무한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그것으로 이상하리만치 내 가슴이 편안해 집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면 이웃이 편하고, 또 이웃이 편하면 자연히 이 사회가 편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 석 복
〈한국조폐공사 감사〉

월남전 참전 육자진언 외며 용기백배
매일새벽 108배…군법당 건립 큰 기쁨

초등학교 시절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순수한 불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아버님이 우선 어머님과 우리 두 형제를 먼저 피난보내고 곧 뒤따라 오시겠다던 것이 일년이 넘도록 연락마저 두절되었을 때의 일이다. 충청도 아산부근 두메산골로 피난간 어머님과 우리 형제는 항상 식사전에 간곡한 기도를 드렸고, 잠자기 전에도 천수경을 외우면서 아버님의 무사(無事)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일년 뒤 유난히도 아침에 까치들이 그렇게 짖어대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아버님은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 했지만 꼭 누가 도와주는 것같이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나는 그 후 어려울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을 하면 반드시 그 기원이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희미하나마 깨닫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1961년)하면서 훌륭한 교회와 멋있는 성당을 옆에 두고 법당도 없이 교실을 빌려 법회를 갖는 불교부에 적을 두게 된 것도 내 이름과 그러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찬불가를 피아노 반주도 없이 지도교관을 따라 배우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요일에 서울근교 사찰과 동국대학교 등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난다.

임관한 후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에도, 월남전에 참전 했을 때에도, ‘옴마니 반메훔’을 외우면 두려움이 없어졌던 기억도 새롭다. 대대장을 할 때 연대의 군목사가 연대장 및 모든 대대장들이 기독교 신자인데 나만 불교신자인고로 반드시 기독교 신자로 개종시키겠다고 매일 찾아와서 쫄라대던 기억도 씁쓸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

장군이 되고 사단장으로서 1만2천명의 부하를 지휘 할 때 나의 불심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던 것 같다. 매일 새벽 법당에서 108배를 하면서 국가와 군 그리고 사단장병을 위해 기도하였고, 내가 우둔하지 않도록 지혜를 갈구하였다. 이타의 참뜻과 기쁨을 체험한 듯 했다. 사단의 전 장병은 사단장이 매일 새벽에 절을 하는 정성을 이해 해서인지 사기도 높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사단으로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군 제일의 사단이 되었다. 재임간 4개의 교회, 3개의 성당 그리고 7곳의 법당을 새로 장만함으로써 편견 없는 종교관과 신앙을 생활화 시켰던 것이 아직도 자랑스럽다. 한번에 1천여명의 장병이 수계를 받기도 했다. 새벽108배는 건강에도 좋았던 것 같다. 특히 전날 아무리 만취가 되었어도 108배 후에는 정신이 어름장같이 맑아졌고, 절을 하던중에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문득 솟아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 국장으로 근무시 국방부 불교신도회장직을 맡으면서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 한번은 OO사단에서 있었던 훼불사건이고 그 다음은 대통령이 군교회에 예배차 참석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법당신도들에게 과잉경호로 큰 불편을 야기했던 사건이었다. 언론은 물론 전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다.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지나치면 스스로 탐·진·치의 3독에 빠질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와 장관의 진정한 사죄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였다. 그 후 군 불교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군내 종교간 갈등문제도 상당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36년간 군복무를 마치면서 전역일 마지막 순간까지 근무에 전념하다보니 예편에 따른 마음 준비는 물론 제2인생 설계를 전혀 못하였다. 그래서 한 가지 방편을 낸 것이 전역 다음날 아침에 가야산 어느 암자를 찾아 주지스님과 부처님과 함께 마음도 추스리고 대략적인 제2인생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1기 佛敎儀式(범음 · 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3개월)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3개월)
● 작 법 반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1999년 5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1999년 5월 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제13기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학과 법사과정 학인모집(1년과정)

불교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정을 대승불교의 발전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할 지도자(스님, 법사,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개설된 도량입니다.
1. 교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대승불교, 정토불교, 법화경 읽기, 반야심경과 공, 밀교의 세계, 천수경 읽기, 불교와 예술, 중국불교와 선, 한국불교, 비종교등.
2. 교수진: 동국대학교수 및 교계 권위있는 각 과목 전공교수
3. 정 규 : 통신 각 OO명
4.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5. 개강일시: 1999년 4월 24일
6.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7. 특 전: ① 승려후보생의 수계등록 ② 법사자격 취득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02) 741-0495, 0496 FAX : 765-3169
海東佛敎梵音大學
海東佛敎儀式敎育院

심야전력기기
IMF · 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 ·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 · 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 · 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